



"말씀과 성찬의 식탁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2024년 5월 5일 / 제636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1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871- 9746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야: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재속 프란치스코: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해설 김미정 제1독서 김지용 제2독서 김하얀 / 입당 414 봉헌 512, 212 성체 161, 특송 파견 46
Narrator Augustine Sung 1st Reader Magnus Johnny 2nd Reader Theo Lee

입당송 |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0,25-26.34-35.44-48

화답송 | 시편 98(97),1,2-3 7 1.3 2 4(◎ 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또는◎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2독서 | 1요한 4,7-10

복음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요한 15,9-17

영성체송 |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주일학교 및 영어미사 안내]

05월 05일	주일학교 NO	Fr. Theo
05월 12일	주일학교 NO	Fr. Jim
05월 19일	주일학교 NO	Combined Mass
05월 26일	주일학교 NO	Fr. Gerald



“기도 부탁드립니다.”

Yong Ah Lee, 윤정의 알폰소,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테레사,
김난수 로사, 이형숙 한나,
주종남 바오로, 이경희 에우세비아, 이동식 토마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저는 지구장이 되고 난 후, 본당 사제일 때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는 명령을 신앙인들이 어떻게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관계의 대상은 배우자일 것이고, 다음은 자녀이며, 마지막으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과연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소 회의적으로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거침없는 말투로 대하고, 때론 화해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상처가 마음속 깊이 남아 결혼을 후회하는 마음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와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세대와 문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한계점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과 공감이 점점 사라지고, ‘효’라는 도리가 우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관계도 요원하게 됩니다. 관계없이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이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머물러라.”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입술로 바치는 기도 외에도 감성적이고 공감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체조배일 수도, 시간 전례(성무일도), 혹은 묵주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든 시간을 내서 그분의 사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모든 관계를 정리한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1)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관계에서 오는 미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어떤 적대적 마음도,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요한 15,13)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활 제6주일에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웃간의 관계를 넘어 부활의 감동이 우리 삶 속에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 제13 관악지구장



부활시기 "신앙의 신비여!" 응답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p>김수정 REALTOR®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 박사 이 준 침, 안약, 제충조절, 통증조절, 제질과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STEVE G KIM DDS Family &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Tri-Valley Orthodontics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N² ART & DESIGN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 탐탁 부동산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미술교실 전통민화 · 수채화 · 드로잉 · 아크릴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가끔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곤 합니다. ‘성당에 들어가면서 과연 어디를 향해 인사해야 하지? 제대 벽면에 걸려 있는 십자가인가? 아니면 성체가 모셔진 감실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잠깐의 고민 끝에 감실과 십자가 사이에 두루뭉술한 방향으로 인사하면서 이 문제(?)를 나름 자체적으로 해결하곤 합니다. 물론 하느님께 흠숭을 표현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당의 중심은 어디이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성찬례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제대이기 때문입니다. 제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재현되며 그분 사랑의 신비가 이뤄지기에 제대가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감실에 성체가 모셔져 있는데 감실이 중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감실은 병자들이나 또는 특별한 상황에 의해 미사에 참례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체를 모셔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체 공경의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즉 감실은 제대에서 이뤄진 성체성사의 사랑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실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으로서 성찬례가 거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우리

구원의 신비가 현재화되는 제대가 중심이 됩니다.

사실 초기에 사도 시대에는 별도의 제대 개념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행한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일반 식탁에서 성찬례를 거행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별도의 고유한 식탁에서 거행했습니다. 이러한 제대의 주재료는 3세기까지 주로 나무를 사용하다 밀라노 칙령(313년)을 통한 종교의 자유 이후에 고정된 형태의 돌제대가 차츰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구약에서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느님을 뵈고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 돌로 표시하면서 그 돌이,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창세 28,10-20)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에페 2,20-21)이 되심과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바위’ (1코린 10,4)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제대의 방향도 동쪽을 향해 자리를 잡게 되는데, 동쪽이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태양이 뜨는 방향이라서 참된 빛이며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대는 단순한 식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지금 여기서(hic et nunc)’ 재현되는 구원의 상징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에서 이뤄지는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여 오늘도 그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p>CPA 조미정 (카타리나) 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 드립니다 HANLEES AUTO GROUP 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PARK CHIROPRACTIC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HARMONY ACUPUNCTURE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Dublin Pediatric Dentistry & Orthodontics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AIDEN KIM 에이든 킴 (니콜라오)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 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p>West Dublin PETSMART 한국어상담가능 수의사 임경택 6960 Amador Plaza Rd, Dublin 925-644-3114 DublinCA@petsmartvetservice.com</p>	<p>James Golf Class 어려운 골프 쉽게 쉽게! Instructor: 나정태(제임스) 925-434-2659 jrha.golf@gmail.com USGTF License #: 11512 </p>	<p> STAR태권도 STAR TAEKWONDO 하성곤 요제프 (925)404-9765 1490 N. Vasco RD, Livermore StarTaeKwonDo.com MasterHa@StarTaeKwonDo.com</p>



5월 주요 전례 일정

- 5월 5일(주일): 어린이 첫영성체(교중미사 중)
- 5월 12일(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 Mother's Day
- 5월 19일(주일): 야외 미사 겸 성모님의 날
- 5월 26일(주일): 학생 졸업 축복식(교중미사 중)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부활 제6주일인 오늘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 어린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봉사하는 본당의 주일학교와 PTA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첫영성체를 축하합니다!

- Claire Kim 클라라
- 연지우 (Jiwoo Youn) 클라라
- 연지안 (Jian Youn) 엠마
- 한중현 (Jonghyon Han) 암브로시오
- 한승연 (Seungyon Han) 카타리나
- 최유진 (Eugene Choi) 에우제니오
- 이하린 (Halyn Lee) 아델리나
- 김주현 (Juhyeon Kim) 마태오
- 김수현 (Suhyeon Kim) 베드로
- 정민진 (Ryan Jung) 바오로
- 이민지 (Kery Li) 도엘라
- 임리원 (Liwon Lim) 모닉스
- 이준희 (Noah Lee) 노아
- 이태을 (Jake Lee) 이안
- 이선규 (Ellis Lee) 이냐시오
- 이문규 (Callen Lee) 요한 보스코
- 문재윤 (Jaeyoon Moon) 마르코

정홍철 아우구스티노 부제님 사목 실습 일정 안내

- 부제님께서 5월 5일(주일) 오전 11시 영어미사를 끝으로 본당 사목 실습 일정을 마무리하십니다. 학기를 마친 후 귀국하시어 사제 서품을 준비하실 예정입니다.
- 사제 서품을 앞둔 부제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당 공동체와 함께해 주신 부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모후 꾸리아 5월 월례 모임

- 일정: 5월 12일(주일), 오전 10시 45분 - 오후 12시
- 장소: Room A

소공동체장 모임

- 일시·장소: 5월 5일(주일), 오전 11시·Room A
- 5월 19일에 있을 야외미사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니 구역·반장님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2분기(5월) 성모회 공동구매 안내

- 품목: 미역, 곡류, 참기름, 새우젓, 멸치 등
- 주문: 조장이나 단체장, 성모회
- 주문 마감: 5월 9일(목)
- 픽업: 5월 21일(화요일 미사 후) 예정
- 문의: 성모회 박경화(408-318-7588)

주일학교 PTA 정기 총회 안내

- 일시: 5월 12일(주일), 오전 11시 - 오후 12시
- 장소: 소성당

요셉회 주관 Mother's Day 음식 행사

- 일시: 5월 12일(주일) 교중미사 후 - 1시까지
- 장소: 성당 주차장
- 메뉴: 짜장면, 탕수육
- 요아킴 회원, 기혼 자매님 무료 쿠폰 지급
- 현장판매 쿠폰: 각 \$10
- 짜장소스, 탕수육 Take out 현장판매 각 \$10

2024 Christus North Retreat

- 일시: 2024년 6월 28일(금) - 30일(주일)
- 장소: Vallombrosa Retreat Center
250 Oak Grove Ave, Menlo Park, CA 94025
- 전예윤 마리조세핀 수녀님과 전지윤 신부님이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청년들을 위해 준비한 피정입니다. 우리 본당의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신청: www.christusretreat.org/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수표 작성 시 Payable to Tri-Valley Korean Catholic Church)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484	\$433	\$3450	\$150	\$150	\$5667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 김선기(3-6), 김태현(4), 박주암(4), 배예자(4), 안영애(3,4), 유창수(3,4), 이성태(3,4), 이주일(1-6), 이태원(4), 이희선(4), 임승원(1-4), 하창완(4), 홍사현(4)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 김선기(3-6), 안영애(3,4), 이성태(3,4), 이태원(4), 하창완(4), 홍사현(4)

Bishop's Appeal

- 김선기(3-6), 안영애(3,4), 이성태(3,4), 이태원(4), 하창완(4), 홍사현(4)

성전불헌금 김선기

- 간식헌헌 이종익 유스토·이형숙 한나

5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수도자와 신학생 양성

For the formation of religious and seminarians

남녀 수도자들과 신학생들이 인간적, 사목적, 영성적, 공동체적 양성을 통하여 각자의 고유한 성소를 키워 복음의 믿음직한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We pray that religious women and men, and seminarians, grow in their own vocations through their human, pastoral, spiritual and community formation, leading them to be credible witnesses to the Gospel.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고해성사 후 나오실 때
고해소 문을 살짝 열어
두시기 바랍니다.